

## 괴물 뒤집기: 장애 동화로 읽는 《슈렉》<sup>1)</sup>

Subverting the Monster: Reading *Shrek* as a Disability Fairy Tale

조던 앨리스<sup>Jordan Alice</sup>, 케이티 앨리스<sup>Katie Ellis</sup>

### 들어가며

드림웍스의 블록버스터 영화 《슈렉<sup>Shrek</sup>》은 백마탄 왕자가 용을 무찌르고 성에 들어가 저주에 걸린 공주를 구출하는 고전적인 동화 서사를 토대로 한 이야기다. 다만 주인공은 오우거<sup>Ogre</sup>이며 백마는 말하는 당나귀고 용은 그저 사랑을 갈구하며, 마침내 저주가 풀린 공주는 영원히 오우거가 되어버린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이다. 전편의 첫 장면에서 이 영화는 관객의 기대를 뒤집고 “근대성을 특징짓는 몇 가지 문화적 관습”(Lacassagne, Nieguth, & Dépelteau)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제공한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영화 중 하나(Lacassagne, Nieguth, & Dépelteau)인 《슈렉》은 장애 관점에서 분석해 볼 만한 중요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야만다 테일러가 말하는 대로 이 영화가 제시하는 몇몇 장애 주제는 한데 모여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비판을 형성한다.

장애의 렌즈로 보면 영화 《슈렉》에는 우리가 논해야 할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쟁점들이 있다. 슈렉과 피오나는 사회가 동화에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인기를 누린다. 이 영화를 만든 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쟁점들과 씨름한다. 비만이나 경제적 격차<sup>diversity</sup> 같은 요소들이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는 대안적인 방식으로 묘사된다.

《슈렉》을 연구 사례 삼아, 이 글은 괴물적인 이미지들이, 장애 긍정 모델<sup>the affirmation model of disability</sup>에 부합하는, 장애에 대한 복합적인 재현들을 제공함을 주장한다. 《슈렉》의 장애 분석<sup>disability analysis</sup>에 앞서 우리는 우선 이 영화의 캐릭터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장애의 사회적 모델 및 비판적 장애 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사회적 장애화<sup>disablement</sup>의 효과를 비교하는 주요 문헌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넘어, 장애 긍정 모델의 재현이라 할 수 있는 《슈렉》을 관통하는 상호의존성과 장애 자긍심의 중요성을 짚는다. 이 글 전체에 걸쳐 우리는 괴물, 오우거, (괴물적인 것<sup>the monstrous</sup>의 한 형태로서) 별종<sup>freaks</sup>, 장애 캐릭터를 비교한다. 평범하지 않은 — 비규범적인 — 몸을 가진 것으로 구축되어 온 존재들을 말이다.

### 괴물을 장애의 렌즈로 읽기

비판적 장애 연구 이론가들은 장애가 서사 속에서 어떻게 다른 무언가의 은유로 이용되는지를 검토하곤 한다 (Mitchell and Snyder; Quayson; Garland-Thomson *Extraordinary Bodies*;

1) 모든 삽입과 각주는 역자.

Garland-Thomson *Freakery*). 로즈마리 갈란드-툼슨에게 있어 이는 문학 서사에서 괴물의 형상을 볼 때 특히 분명히 드러난다.

**monster**<sup>괴물</sup>라는 말 — 특이한<sup>singular</sup> 몸에 붙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이름 — 은, 현대어 동사 **demonstrate**<sup>보여주다, 입증하다</sup>의 어원이기도 한, 경고하다<sup>warn</sup>, 보여주다<sup>show</sup>, 깃새를 비치다<sup>sign</sup>라는 뜻의 라틴어 *monstra*에서 온 것이다. (Garland-Thomson, *Freakery* 3)

장애는 괴물적인 몸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 “신체적 규범을 준수하는<sup>approximate to</sup> 데에 크게 실패한 몸들은 근본적으로<sup>radically</sup> 배제된다” (Shildrick 2). 비판적 장애 연구 분야는 어떻게 이러한 규범들이 구축되어 특정한 몸들을 배제하는지에 주목한다. 조블링은 전 세계 여러 문화의 민담에 전형적인 오우거 형상이 등장함을 지적한다. 오우거는 “내집단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반인<sup>非人</sup> 괴물”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인공은 대개 오우거를 죽임으로써 제압한다” (Jobling).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인간이라기에는 너무 큰 괴물적인 캐릭터로 묘사되는 오우거는 공포의 원천이 된다. 오우거는 아동 서사물에서 서사의 보철장치로서(Mitchell & Snyder 참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러므로 괴물은 서사 속에서 다른 무언가의 재현으로서 존재한다. 장애의 렌즈를 통한 괴물 독해는 비판적 장애 연구 분야에서 깊이 연구되어 왔다. 여러 연구가 괴물성이 흉측함<sup>disfigurement</sup>을 통해, 전형적으로 규범적인, 혹은 비장애 몸과 대비를 이루며, 재현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문화적 재현을 통해 몸들에 부여되는 의미와 그러한 의미가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에는 종종 페미니즘 이론이 기여한다 (Garland-Thomson *Extraordinary Bodies*). 괴물의 재현과 관련된 부정적인 장애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비판적 장애 비평이 많지만, 이 괴물들이 어떻게 규범인<sup>the normate</sup>의<sup>2)</sup> 사회적 구축을 문제 삼고 비판하는지를 고찰하는 이론가가 늘고 있다 (Smith).

마사 스토다르트 홈즈의 「이렇게 태어났다: 장애로 프랑켄슈타인 읽기<sup>Born This Way: Reading Frankenstein with Disability</sup>」는 괴물적인 캐릭터가 사회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재현이 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다. 이 피조물<sup>Creature</sup>은 “최초에 타인들의 시선<sup>staring</sup>, 말, 행동으로부터 시각적 동일성을” 형성한다. 그녀는 “[작품에서] 서술되는 대로 그의 장애라는 조건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배제는 본성상 순수하게 미학적이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평한다. 작품 전반에서 이 피조물은 두려움의 대상인 괴물성과 연민의 대상인 취약성을 모두 예증한다. 마그리트 실드릭은 이러한 속성들을 대중 문화에서 비규범적인 몸의 토대가 되는 개념들로 제시한 바 있다. 괴물성이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자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수잔 마리 슈바이크는 이러한 부정적 재현과 추형<sup>醜形</sup>금지법<sup>the ugly laws</sup>이 연관됨을 말한다.

추형금지법이란 1860년대부터 1974년까지 외모가 추한 이들의 사회 참여를 금지한 일련의 법률을 가리킨다. 추형금지법은 비규범적인 몸, 특히 흉측한 몸을 겨냥했다. 이 법률들은 소위 추한 이들의 인격<sup>personhood</sup>을 삭제하는 문구로 되어 있었다. 예컨대 “보기 싫거나 역겨운 것<sup>object</sup>”, 혹은 거리에 나오도록 허락받기에는 부적절한 사람”과 같은 말을 통해, 법안을 작성한 이들은 법의 적

2) 규범인으로 옮긴 *normate*는 (대릴 P. 에번스<sup>Daryl P. Evans</sup>가 제시하고) 갈란드-툼슨이 대중화한 용어로, “문화적 자아의 숨겨져 있는 주체 위치, 일련의 일탈적 타자들 — 이들의 유표된 몸이 규범인의 한계를 이룬다 — 로써 윤곽이 그려지는 형상”으로 정의된다 (*Extraordinary Bodies*(*Twentieth Anniversary Edition*), Columbia UP, 2017, p. xii, p. 8.) “normate 는 normal + -ate 의 조합으로, -ate 는 ‘어떤 직무, 임무, 신분, 지위, 직능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따라서 normate 는 ‘정상인이라는 지위를 차지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다” (전혜은,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사유하기」, pp. 282-3, 『人文科學』 제113집, 2018, pp.267-318). 손흥일은 국역본 『보통이 아닌 몸』에서 따옴표를 쓴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용을 받는 이들을 대상화한다. 구시대의 추형금지법은 추한 이들은 보고 있기에 무섭다는 사회적 관점이 반영된 것인데, 이 관점은 그런 사람들 자체에 대한 공포로 나타난다. 그래서 비규범적인 몸 이미지들이 영화나 문학에서 무서운 괴물로 그려진 것이다. 여기서 살핀 재현들은 비규범적인 괴물적 몸 묘사의 전형이다.

괴물들은 줄곧 장애 렌즈를 통해 독해되어 왔지만,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슈렉》과 같은 재현의 중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장애 자긍심과 어떤 긍정적 장애 모델<sup>an affirmative model of disability</sup>을 향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긍정적 장애 모델<sup>The Affirmative Model of Disability</sup>

긍정적 모델은 장애 예술 운동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졌다. 콜린 캐머런(*Disability Arts 11*)은 “긍정 모델은 손상을 숨기거나 수치스러워 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의 일부로서 소유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의 부정적인 장애 재현을 의료적 장애 모델과 관련되는 가치관이나 전제들이 반영된 것으로 여긴다.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몸에 관한 문제로 놓는 반면 사회적 모델은 이를 사회에서 문제로 칭해지는 것<sup>so-called problem in society</sup>으로 여긴다. 긍정적 모델은 사회적 장애 모델에 기반하지만 동시에 이를 비판한다. 사회적 모델은 “사회-구조적 장벽”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장애의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측면들을 무시”한다는 장애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Cameron Developing an Affirmation Model 24*). 반면 긍정적 모델은 사회 구조에 놓이는 것으로서의 장애 정의는 유지하면서 이에 더해 장애나 손상을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지배적인 문화적 서사를 뒤집는다.

미디어에서의 고정관념 문제는 여전히 너무도 만연해 있고 괴물 서사는 계속해서 장애가 있는 이들을 끌어다 쓰고 있지만, 장애인과 함께 진정성 있고 긍정적인<sup>authentic and positive</sup> 재현을 만들려는 진지한 시도가 힘을 얻고 있다.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2020년작 영화 《불구 캠프<sup>Crip Camp</sup>》에 영감을 얻은 장애 영화제작자 조직 FWD-Doc은 넷플릭스의 후원으로 사회적 기업 Doc 소사이어티와 협업해 <통합과 접근성을 위한 도구모음<sup>A Toolkit for Inclusion & Accessibility</sup>>을 공개했다. 장애 재현과 미디어 접근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Mitchell; FWD-Doc & Doc Society). 긍정적 장애 모델에 기반한 이 통합 도구모음은 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장애를 가진 이들이 다차원적인 인물로 보이게 할 것
- 사람들의 삶이 유의미하고<sup>valid</sup> 가치 있어 보이게 할 것
- 장애 공동체와의 접촉이 있을 것
- 장애 자긍심을 표현할 것
- 교차성을 표현할 것
- 연대의식<sup>allyship</sup>을 표현할 것
- 질 좋은 음성 해설과 자막을 사용할 것
- 장애를 비극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을 것
- 장애를 영감을 주는 것으로 보이게 하지 않을 것
- 장애를 회심의 계기<sup>punchline</sup>로 이용하지 않을 것
-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을 표현하지 않을 것
-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유아화하지 않을 것
- 정상신체중심주의적<sup>ableist</sup>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아래에서는 FWD-Doc의 권고안을 토대로 《슈렉》에 대한 주제적 분석을 수행한다. 《슈렉》에서는 이 권고 대부분이 구현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읽어내기: 규범적인 사회의 설정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 글에서는 《슈렉》 1편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영화 네 편과 몇 편의 TV 스핀오프, 한 편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나와 있다. 래커사냐·니귀트·데펠토에 따르면 영화 1편부터 3편까지는 원작을 토대로 3부작을 이루며 “상당한 수준의 주제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 개관한 문화적 관습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이어간다는 뜻이다. 반면 스핀오프들과 영화 4편은 이 같은 주제적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슈렉》의 첫 장면에서 화자는 어떤 동화책을 읽는다. 잘생긴 기사가 용이 지키고 있는 탑에서 공주를 구해내는 전형적인 이야기다. 이야기가 끝에 다다를 즈음 한 페이지가 찢겨 나가고 화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겁나 많이 (물 내리는 소리)”. 이 도입부는 영화가 규범을 뒤집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며, 이 영화는 그에 부응한다. 관객은 즐겁고 당당하며 독립적이고 스스로를 편히 여기는 듯해 보이는 다차원적인 주인공을 만나게 된다. 그에게는 취미가 있다.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하고 책을 읽는다. 외모와는 달리, 전형적인 오우거는 결코 아니다.

관객이 처음 만나는 것은 슈렉이라는 이 당당한 인물이지만, 우리는 곧 그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를 긍정적으로<sup>positively</sup> 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슈렉은 그를 죽이려 드는 마을 사람 무리와 마주친다. 그는 겁을 주어 그들을 쫓아버리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는 망연히 그를 바라본다. 이는 앞에서 논한 갈란드-톰슨의 응시<sup>stare</sup> 개념을 떠오르게 한다. 이 응시는 사회의 규범적인 성원이 타자, 괴물, 기형으로 여겨지는 이와 조우할 때 발생한다. 응시는 매혹적이면서도 잠재적으로 두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로 묘사된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의 이 같은 재현을 마주친 후 슈렉은 당나귀를 만난다.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히려 드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던 당나귀는 슈렉 역시 “별종”, 다시 말해 동지<sup>ally</sup>임을 금세 알아본다. 하지만 슈렉은 자신을 괴물로 치부하지 않는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슈렉     있잖아, 작은 당나귀 씨, 나를 좀 봐. 내가 뭐게?  
당나귀   음, 엄청 키다리?  
슈렉     아냐! 난 오우거야. 그거 있잖아, “햇불이랑 쇠스랑을 들어!” 말야. 그런데도 넌  
          괜찮아?  
당나귀   괜찮은데.  
슈렉     정말로?  
당나귀   정말이야, 정말로.  
슈렉     오.  
당나귀   이봐, 난 네가 좋아. 이름이 뭐랬지?  
슈렉     어, 슈렉이야.  
당나귀   슈렉? 음, 네가 너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니, 슈렉? 네겐 ‘저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신경 안 써’ 하는 그런 게 있어. 난 그게 좋아. 그걸 존중해, 슈렉.  
          다 괜찮아.

슈렉은 스스로를 편히 여기지만 타인들의 관점을 토대로 [자신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 왔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서와(Stoddard Holmes) 마찬가지로 이 관점은 본성상 미학적이며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관객은 이윽고 막시무스 파콰드 영주를 만나게 된다. 슈렉의 세계에 추형금지법을 부과하는 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인물이다. 파콰드 영주는 종종 “그거”, “저거” 하는 말로 “별종들”을 대상화하며 그들이 “나의 완벽한 세계에 독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그가 다스리는 돌록은 규범적인 사회를 표상한다. 돌록을 “완벽한 마을”로 칭하며 “소란 피우지 말아요, 줄 맞춰 서요, 그럼 다 잘 될 거예요” 하고 경고하는 환영가가 있는 곳이다. 돌록은 또한, 화면 속의 관객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여주는 — 그들은 이를 따른다 — 큐카드를 활용해, 사회적 규범에 관한 지침을 따르는 사회로 그려진다. 큐카드는 이 완벽한 사회의 구축된 성격에 대한 논평 또한 제공한다. 파콰드는 키가 작으며, 이는 쿠마리 캠펠이 말하듯 능력[비장애]ability이 구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능력이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타자로서의 장애를 설정하고 주변화함으로써이다 (Kumari Campbell).

성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슈렉은 오직 외모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경비병들에게는 그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군중은 환호한다. 하지만 슈렉이 싸움에서 실력을 발휘하자 군중은 그를 응원하기 시작한다. 이는 돌록이 슈렉이 신체적으로 기량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자 그에게서 가치를 찾는 능력주의적<sup>meritocratic</sup> 사회임을 시사한다.

## 읽어내기: 긍정적 입장 취하기

영화가 이 구축된 규범적 사회를 보여준 후 슈렉과 당나귀는 모험에 나서고, 계속해서 전형적인 서사를 무너뜨린다. 슈렉이 그냥 파콰드를 무너뜨리지 않고 공주 구출 원정을 받아들이자 당나귀가 이유를 묻는다. 슈렉은 이에 답해 전형적인 오우거의 방식을 말한다. “어쩌면 온 마을 사람들의 목을 베고 머리를 매달 수도 있겠지.” 반대로 그는 스스로를 양파에 비유한다. “양파는 여러 겹”이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다차원적인 인물이라는 이 영화의 착상을 강화한다. 당나귀는 왜 모두가 좋아하는, 예컨대 파르페 같은 비유를 들지 않는지를 묻지만 슈렉은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는 그가 규범적이지 않다 해도 다차원적이라는 데에 가치를 두는 긍정적 입장의 예시로 주목할 만하다.

슈렉과 당나귀는 탑에서 피오나 공주를 구출한다. 등장하는 순간에 그녀는 “전부 잘못 됐어”라고, “이러는 법은 없는 거”라고 말한다. 이 감정은 전형적 서사가 뒤집히는 데에 관객이 느낄 만한 혼란을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슈렉은 헬멧을 쓰고 있으며 피오나는 그가 오우거란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 슈렉을 용감한 기사로 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헬멧을 벗어달라 청하자 슈렉은 거절한다. 취약한, 혹은 자기의식적인 슈렉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되는 대목이다. 슈렉은 오우거가 아닌 무언가로 보이고 싶어 한다.

돌아오는 여정은 길고 피오나의 성격에는 깊이가 생긴다. 그녀는 비판습적으로 그려지며 슈렉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녀는 새를 사냥하고 쥐를 먹으며 트림을 하고 강도와 싸우고 슈렉이 먹을 벌레를 잡아 준다. 슈렉과 피오나의 관계가 깊어지고 당나귀는 둘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슈렉은 누구라도 자신을 오우거로밖에는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나귀는 자신이 그러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당나귀 뭐가 문제야? 왜 세상을 피하려는 거야?

슈렉 난 아무 문제 없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사람들은 날 힐끔 보고는 도망

가, “악! 도와줘요! 도망쳐! 커다란, 멍청한, 추악한, 오우거야!” (한숨) 그들은 알아 보려 하지도 않고 나를 판단해.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낫다는 거야.

당나귀 그거 알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난 너를 그저 크고 멍청하고 추악한 오우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슈렉 그래, 알아.

당나귀는 그들이 공유하는 “별종”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그가 처음부터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 공동체의 일례로 주목할 만하다.

당나귀는 이윽고 피오나가 밤에는 오우거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처음엔 충격을 받지만, 그녀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에 신경을 쓰거나 그것이 그녀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덜하게 만든다고 여기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부정적인 반응이 없는 것이 피오나에게는 이상하게 보인다. 장애가 있는 이들 일부에게 스며 있는 내면화된 정상신체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자기혐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면화된 정상신체중심주의의 근저에는 흔히 ‘정상’이 되고픈 욕망이 있는데, 이는 지지가 부재하거나 긍정적인<sup>positive</sup> 장애 공동체와의 접점이 부재하는 데에 기인한다 (Blackwater). 당나귀는 피오나가 이 내면화된 낙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지만 슈렉의 내면화된 정상신체중심주의로 인한 오해는 슈렉과 피오나를 갈라놓는다.

당나귀 — 그는 이내 다른 인물들을 위한 긍정<sup>affirmation</sup>의 목소리가 된다 — 는 궁극적으로 슈렉에게 스스로의 내면화된 정상신체중심주의를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그가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끼게 만드는 존재다. 이것이 다른 “별종”에게서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영화에 흔히 나타나는 정상신체를 가진 주인공이라는 강박 관념<sup>an able-bodied hero complex</sup>이 아니라 장애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장애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런 강인함은 긍정적 장애 모델의 또 다른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슈렉과 당나귀는 돌북으로 돌아와 파콰드와 피오나를 대면한다. 규범적 사회의 재현을 더 볼 수 있다. 큐카드가 다시 등장해 규범적 사회의 구축된 성격을 보여준다. 파콰드는 슈렉에게 “아무도 너를 원치 않는데 살아 있는 건 아주 무례한 일”이라 말하며 다시금 자신의 영지에 추형금지법을 발할 것임을 시사한다. 피오나가 자신이 오우거라는 사실을 밝히자 파콰드는 곧바로 그녀를 내치지만 그녀는 이미 슈렉에게서 공동체와 긍정을 찾은 터다. 이제 영웅이 된 슈렉이 파콰드를 무찌르지는 않지만, 그는 궁극의 승자가 되는 대신 용에게 잡아먹힌다. 용의 괴물적인 전형이 뒤집히는 것이다 (Lacassagne, Nieguth, & Dépelteau). 군중의 박수갈채는 그들이 그저 이 마을에 강요되어 온 규범적인 사회적 관점에 동조했을 뿐임을 시사한다. 슈렉과 피오나의 첫 키스에 경비병이 큐카드의 문구를 지우고 [감동을 표하는] “와”라고 쓰는 대목은 규범적 사회에 대한 최종적인 반란을 시사한다.

슈렉 피오나? 피오나, 괜찮아?

피오나 음, 괜찮아. 하지만 이해가 안 돼. 난 아름다워져야 하는 건데.

슈렉 아름다운걸.

아마도 이 결말이, 가장 통쾌한 긍정적 모델 재현일 것이다. 슈렉과 피오나는 늪으로 돌아간다. 다른 “별종”들, 그간의 여정에 만난 별종은 아닌 동지들에 둘러싸여 자유로이 오우거로 있을 수 있는 곳이다. 둘은 자긍심 넘치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교차적 존재들에 둘러싸여 잘 지낸다. 영화 《슈렉》 1편이 극복에 관한 이야기라고는 해도 자신의 괴물성/장애를 극복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장애화하는 사회의 관점과 내면화된 관점을 극복하는, 차이에 자긍심을 갖는 공동체를 포용하는 이들에 관한 영화인 것이다.

## 결론

비판적 장애 연구에서 괴물은 초과적 재현<sup>hyper-representation</sup>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사에서 괴물은 다른 무언가를 표상하고 드러내는 데에 이용된다. 갈란드-툼슨의 설명대로 괴물은 의미론적 구분을 통해 비규범적인 몸을 보여준다. 아동 문학이나 대중문화에서의 오우거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서사적 보철장치로 이용되는 괴물적 형상이다. 하지만 《슈렉》은 이렇게 구축된 괴물을 가져다 뒤집어서는 아동 서사에서의 규범적 캐릭터·사회 구축을 비판한다. 이 영화는 긍정적 장애 모델에 기대고 주인공 슈렉, 당나귀, 피오나의 여정을 통해 장애 자긍심을 끌어안음으로써 이러한 비판을 수행한다.

## 참고문헌

- Blackwater, Amelia. "Disability Community - Our Internalised Ableism." Deafness Forum of Australia 2020. 23 July 2021. <https://www.disabilityaustraliahub.com.au/disability-community-our-internalised-ableism>.
- Cameron, Colin. "Developing an Affirmation Model of Impairment and Disability." 2013.
- \_\_\_\_\_. "Disability Arts: The Building of Critical Community Politics and Identity." *Politics, Power and Community Development* (2016): 199.
- FWD-Doc, and Doc Society. *A Toolkit for Inclusion & Accessibility: Changing the Narrative of Disability in Documentary Film*. London: FWD-Doc. Feb. 2021. 2 Aug. 2021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dd1c2b5a0f7a568485cbedd/t/602d4708d39c1d1154d0902a/1613581716771/FWD-Doc+Toolkit+small.pdf>.
- Garland-Thomson, Rosemarie. *Extraordinary Bodies: Figuring Physical Disability in American Culture and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송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 \_\_\_\_\_. *Freakery : Cultural Spectacles of the Extraordinary Bod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The Politics of Staring: Visual Rhetorics of Disability in Popular Photography." *Disability Studies: Enabling the Humanities*. Eds. Sharon L. Snyder, Brenda Jo Brueggemann, and Rosemarie Garland-Thomson.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2002. 56-75.
- Jobling, Ian.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the Hero-Ogre Story: A Cross-Cultural Study." *Human Nature* 12.3 (2001): 247-272. 2 Aug. 2021 <https://doi.org/10.1007/s12110-001-1009-7>.
- Kafer, Alison. *Feminist, Queer, Crip*.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3.
- Kumari Campbell, Fiona. *Contours of Ableism: The Production of Disability and Aablednes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 Lacassagne, Aurélie, Tim Nieguth, and François Dépelteau, eds. *Investigating Shrek : Power, Identity, and Ideolo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 Mitchell, David, and Sharon Snyder.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Mitchell, Wendy. "DocSociety, Netflix Launch Groundbreaking Disability and Inclusion Toolkit (Exclusive)." *ScreenDaily* 25 Feb. 2021.
- Quayson, Ato. *Aesthetic Nervousness: Disability and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송홍일 역, 『미학적 불안감』, 디오네, 2016.]
- Schweik, Susan M. *The Ugly Laws: Disability in Public*.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2009.
- Shildrick, Margrit. *Embodying the Monster: Encounters with the Vulnerable Self*. London: Sage, 2002.
- Smith, Angela. *Hideous Progeny: Disability, Eugenics, and Classic Horror Cinema*. West Sussex: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 Steig, William. *Shrek!* New York: Farrar, Straus and Grioux, 1990.
- Stoddard Holmes, Martha. "Born This Way: Reading Frankenstein with Disability." *Literature and Medicine* 36.2 (2018): 372-387.
- Swain, John, and Sally French. "Towards an Affirmation Model of Disability." *Disability & Society* 15.4 (2000): 569-582.
- Taylor, Amanda. "Shrek's Portrayal of Disability." *Disability in Children's Literature* 5 May 2017. 13 July 2021 <https://disabilityinchildrenslit.wordpress.com/2017/05/05/shreks-portrayal-of-disability>.